

日帝下 平壤지역 일본인의 銀行설립과 경영: 三和·平壤·大同銀行의 사례를 중심으로

홍성찬

일제 강점하의 一般銀行史는 合併의 역사였다. 1920년에 21개였던 일반은행이 경기변동과 일제의 은행합동 정책으로 부단히 합병되어 1943년에는 朝興, 朝鮮商業 두 銀行밖에 남지 않은 것이다. 본 연구는 이 가운데 鎭南浦와 平壤의 일본인들이 三和銀行(1916년)과 平壤銀行(1920년)을 창립하고 1921년 두 은행의 地方的 合同을 통하여 大同銀行을 출범시킨, 그리고 1925년에 그 大同銀行이 서울의 朝鮮商業銀行에 재합병되어 간 과정을 사례연구로서 검토한 글이다. 한국 近代銀行史를 계통적으로 정리하려면 個別 銀行史에 관한 사례연구 축적이 반드시 필요하고, 특히 그 동안 학계가 일본인 은행의 설립 경영에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연구사적으로 일정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I. 序 言

일제의 한국강점 정책은 한국을 일본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시켜 그 '利源을 開發'¹⁾ 함으로써 收奪을 극대화하는 데 궁극적 목표가 있었다. 이에 일제는 강점 이전부터 한국에 자본주의 제도를 移植하기 위한 일련의 경제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政策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었다. 주지하듯 자본주의는 대규모 企業資金을 효과적으로 조달받기 위하여 大衆資本 동원이 용이한 株式會社 제도와 金融市場을 발전시켜 왔다. 일제의 資本動員 정책도 예외가 아니었다. 강점 초 일제가 오늘날의 證券去來所에 해당하는 (株)京城株式現物取引市場의 설립을 인가하고, 그 姊妹 補助機關으로서 朝鮮實業銀行·京城證券信託會社 같은 증권금융 기관의 설립을 허가한 것은 직접금융 시장을 助成한 예였다. 그리고 日本銀行을 頂点으로 朝鮮銀行, 朝鮮殖産銀行, 金融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120-749.

1) 中村郁 [34], p. 16.

組合 같은 국책금융 기관과 一般銀行으로 연결되는 銀行制度를 정비한 것은 간접금융 기관을 育成한 예였다. 이에 따라 1910년대 한국에는 다수의 일반은행이 설립되었다. 그런데 1920년에 21개로 頂點에 달했던 일반은행은 그 후 빠른 속도로 集中되어, 1943년에는 朝興, 朝鮮商業 두 銀行밖에 남지 않게 되었다. 일제하의 일반은행사는 한마디로 합병의 역사였던 것이다. 이에 그 동안 학계는 한국 근대 금융사, 은행사를 계통적으로 정리한다는 목표 아래 일제하의 銀行合併史에 주목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²⁾ 그렇지만 몇 가지 미진함도 남았다. 일반은행의 설립·합병을 둘러싼 국내의 경제여건의 변동, 해당지역의 경제상황, 특히 韓·日人の 대립 경쟁관계를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합병의 주체이자 객체였던 일반은행의 경영자료에 접근하여 設立과 合併의 배경, 과정, 결과 등을 면밀하게 추적하는 데 다소 소홀했던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과제를 염두에 두면서 1916년과 1920년에 鎭南浦와 平壤의 일본인들이 설립한 三和銀行과 平壤銀行이, 1921년에 합동하여 大同銀行으로 개편되고, 1925년에 그 大同銀行이 서울의 朝鮮商業銀行에 재합병되어 간 과정을 사례연구로서 검토하려는 것이다. 20세기 전반기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小銀行 합동에 의한 大銀行化, 銀行資本의 集中集積은 일상적 현상이었다.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같은 독점자본주의 국가는 물론이고, 강점하의 한국도 예외가 아니어서 1920년대 前半期에만 京城, 平壤, 三和, 新義州, 元山商業, 朝鮮實業, 大同 등 7개의 일반은행이 吸收·新設 合併으로 소멸하였다. 1920년 3월에 발발한 反動恐慌과 그 후의 불황으로 경영이 악화한 데다 일제가 中小銀行 합병정책을 강력히 실시한 때문인데, 이 시기 은행합병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가졌다. 첫째는 이들 7개 은행 모두 일본인 은행인 점이고, 둘째는 대부분이 해당지역의 다른 일반은행과 地方的 合同을 거쳐 결국은 서울의 大銀行에 재합병된 점이며, 셋째는 합병이 일본인 은행 사이에서만 이루어진 점이었다.

본 연구에서 검토할 三和·平壤銀行 설립과 그 合同에 의한 大同銀行 탄생, 大同銀行의 朝鮮商業銀行으로의 吸收합병 과정은 이 세 측면을 모두 포함한 사례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들의 설립 합병 과정을 통하여 1920년대 전반기 한국에서 전개된 銀行資本의 集中 양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려 한다. 특별히 여기서 검토할 평양은행은 이 지역 韓·日人들이 은행설립의 주도권 장악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가운데 결국 일본인이 설립한 地方銀行이다. 이런 까닭에 이 은행에는 창립 초부터 주로 일본인 고객이 출입했고, 자연스럽게 영업기반이 일본인 사회로 고정되었다. 은행설립 주체가 한국인인가 일본인인가에 따라 고객이 민족적으로 분리된 현상은 일제하 내내 지속된 일이고, 1920년대에는 특히 심각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이 시기 은행경영을 둘러싸고

2) 高承濟 [14], [25], 堀和生[26], 李碩崙[19], 尹錫範 外 [18].

형성되었던 韓·日人の 대립 경쟁관계를 검토하는 데도 유념할 생각이다. 아울러 본 연구는 그 동안 平壤지역에 대한 연구가 한국인 資本家層의 동향을 검토하는 데 치중해 왔었다는 점에서³⁾ 이를 보완한다는 의미도 지닐 것이다.

Ⅰ. 三和銀行의 設立과 經營危機

진남포는 대동강 입구에서 약간 북쪽에 위치한 西鮮 제일의 良港이자 한국 제일의 河川港으로서, 한말 일제하에는 貿易額이 釜山, 仁川港에 이어 3위를 차지했던 곳이다. 1894년경까지도 인구 190여 명(일본인 32명)의 寒村이었던 이곳은 청·일전쟁으로 일본군대의 주둔 병참기지가 되면서 인구가 늘었고, 1897년 개항 후에는 稅關, 各國 居留地會, 中日領事館, 日本居留民總代役場 등이 개설되면서 인구가 더욱 늘어 三和郡廳이 이곳으로 옮겨 올 정도였다.

특히 1904년 러·일전쟁 때 軍事要衝地 物産集散地로 각광받으며 御用商人 이주, 거주자 격증, 토목 건축공사 성행이 이어져 일제 때의 市街地 기초가 이 때 만들어졌고, 1906년에는 京義線 부설로 海運·河運에 이어 陸運까지 원활해졌다. 인구도 1907년 1만 1,362명(일본인 2,755명, 외국인 426명)에서, 1921년에는 2만 2,667명으로 급증하였다.⁴⁾ 그렇지만 1916년 8월까지 이곳에는 朝鮮銀行 지점만 있었을 뿐 일반은행은 지점조차 없었다.⁵⁾ 그만큼 일반은행 설립이 절실했다.

이런 가운데 1916년 9월 5일 당시 鎮南浦府 일본인 상공업계의 代父 富田儀作은 이곳 三和町에 자본금 30만 원(납입 7만 5,000원의 三和銀行 設立을 發起하고 총독부에 인가를 요청했다. 一般銀行業, 小產業者에 대한 貸付, 貯蓄預金 등을 취급하려 한 것이다.⁶⁾ 그 해 10월 25일 총독부 認可가 나오자, 10월 30일 발기인회, 창립총회, 취체역회를 열어 定款 작성, 株式代金 징수, 取締役 監査役 支配人 선임, 대표취체역 互選, 設立 등기를 모두 마쳤다. 삼화은행 창립자 富田儀作(1858~1930)은 일본 兵庫縣의 釀酒家

3) 오미일 [15], [16], 朱益鍾 [20], [21].

4) 田中麗水 編 [33], 第13編. 일제는 1910년 강점 후 원래 三和府였던 이곳을 鎮南浦府로 개편했다.

5) 진남포에 금융기관이 설치된 것은 1901년 6월 제일은행 진남포 출장소가 처음인데, 韓國銀行을 거쳐 朝鮮銀行 지점이 되었다. 조선식산은행 진남포지점은 1917년 6월에, 鎮南浦·三和금융조합은 1919년 4월과 11월에 각각 설립되었다. 제일은행 진남포출장소 설치 전에는 진남포우편국(1900년 7월 설립)이 우편저금과 우편환을 취급하며 일본으로의 送金등을 맡았다.

6) 「1916. 10. 30. 三和銀行定款」. 信用이 약한 小商工業者, 小農 등 '下層'에 대한 금융배려 즉, 對人主義·無招保貸付 위주의 庶民銀行을 표방했고, 저축예금 취급을 통한 저축의식 함양도 표방했다. 富田精一[30], p. 348~362. 그래서 「三和銀行事業目論見書」에는 '小產業資金貸付取扱方針摘錄'과 '貯蓄預金特別取扱要項'을 特記해 두었다.

〈표 1〉 三和銀行의 發起人 및 株主

(단위: 株)

富田儀作	5,000	4,050	4,300	4,200	4,200	1~10期 代表取締役
富田徹三	250	250	250	250	250	1~10기 取締役 儀作의 사위·조카
富田精一	250	250	250	250	300	儀作의 長男
富田角三	—	250	250	250	250	儀作의 2남
富田高助	—	250	250	250	250	儀作의 3남
富田島	—	250	—	—	—	儀作의 아들
富田다미코	—	150	150	150	—	儀作의 妻
富田泰三	100	100	100	100	100	儀作의 조카
富田요시코	—	100	100	100	100	徹三의 妻(儀作의 長女)
富田太郎	—	50	50	50	50	철삼의 아들
富田計野	—	—	—	—	100	精一의 妻
塚野季三	100	100	100	100	100	1·2기 監査役 3~10기 取締役
井田作太郎	100	100	100	100	100	
藤本元次郎	100	—	—	—	—	1·2기 취체역 兼 支配人
野田良二	100	100	100	100	100	3~10기 감사역
木村庸三郎	—	—	—	100	100	
계	8명	13명	12명	13명	13명	

자료: 〈株式會社 三和銀行 設立許可申請書〉: 『三和銀行 營業報告書』, 發起人은 제1기 株主와 일치함. 藤本元次郎은 1917년 6월 19일 사망.

에서 태어나, 1897년 大阪市 小西和商店의 臺灣지배인이 되어 臺灣에서 석탄·樟腦·寒天 채취업에 종사했고, 1899년 京城지점장이 되어 한국에 왔다. 來韓 얼마 후 지점을 整理하여 광산업에 투신한 그는 황해도 은율·장연 두 鑛區를 채굴하여 거부를 쌓자 진남포 일대에 富田農場을 개설하고 지주경영을 시작했다.⁷⁾ 진남포 부근에 三和農園을 개업하여 채소·과수 재배와 가축사육을 시작하고, 거기서 가축사육을 분리하여 三和牧場을 설치한 그는 三和花園을 신설하여 花芬·樹木業에도 진출했다.

그는 과학영농에도 적극적이어서 삼화농원에서는 品種改良 耕種法을 연구하고 氣象을 관측하여 농사에 활용했으며, 삼화목장에서는 專門技師를 고용하여 가축개량에 힘쓰는 동시에 搾乳業에도 진출하였다. 三和花園에서는 시민의 愛林思想을 고취한다며 散策公園을 만들기도 하였다. 經營多角化를 꾀한 것이다. 사회활동도 활발했다. 鎮南浦 日本人居留民團 議員·團長, 府會 議員, 商業會議所 議員·會頭, 平南道會議員,

7) 富田儀作은 長谷川義雄 [32], 富田精一 [30] 참조. 富田農場은 大橋清三郎 外編 [28], pp. 66~158 참조.

朝鮮農會支會長을 지냈고, (株)鎮南浦物産市場사장, 朝鮮水産(株) 平南總代, 鎮南浦電氣(株) 중역으로 일했으며, 1912년과 1915년에는 일본정부로부터 藍綬褒章과 瑞寶章을, 1915년에는 在韓 일본인 대표로 천황즉위식에 참석하여 大禮記念章을 받기도 하였다. 일본인들이 그를 鎮南浦의 開拓者·恩人, 朝鮮資易開發의 功勞者, 半島의 巨人, 統治의 大功勞者라고 評한 데는 이런 이유가 있었다.⁸⁾

이런 富田儀作은 1916년 11월 農業, 鐵鑛의 採取 運搬, 請負業, 목축업, 陶器 제조, 어업, 광업 경영을 목적으로 富田合資會社를 설립하는⁹⁾ 한편, 그 해 9월에는 앞서의 삼화은행 설립을 받기하였다. 발기인과 주주 구성으로 보아 이 은행은 富田儀作 개인은행이었다.¹⁰⁾ (<표 1>) 富田儀作은 富田農場, 三和農園, 三和牧場, 三和花園에 이어 富田合資會社, 三和銀行을 설립함으로써 진남포 일대에 三和그룹을 형성했던 것이다.

삼화은행은 1916년 11월 4일 은행업 免許가 나오자 곧 영업에 착수했다.¹¹⁾ 1917년에는 換業務도 개시하여 국내의 여러 은행과 換去來 협정을 체결하였다. 일제 초 일반은행의 營業基盤은 설립주체의 민족적 성격에 따라 민족적으로 양분되어 있었다.¹²⁾ 한국인이 세운 은행에는 한국인이, 일본인이 설립한 은행이나 일본 보통은행 한국지점에는 일본인이 주로 출입하였다. 고객의 분리는 은행의 영업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다. 일본인 은행은 일본인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일본인 은행과, 한국인 은행은 한국인 고객을 위하여 한국인 은행과 주로 換협정을 체결했던 것이다. 삼화은행도 예외가 아니었다. 창립 초 이 은행과 換去來 約定을 체결한 은행은 朝鮮商業·慶一銀行을 제외하고는 일

8) 貴田忠衛 [27], p. 110, 阿部薫 [31], pp. 486~487, 田中麗水 編 [33], 13면.

9) 富田合資는 1920년 8월에 창립자본금 5만 원을 50만 원으로 늘렸다. 당시 社員은 富田儀作(35만 원 出資, 代表), 富田徹三, 富田精一, 富田角三, 富田高助(이상 2만 5,000원), 富田太郎(1만 원), 富田요시코, 富田가스노(이상 1만 5,000원), 富田儀一(1만 원) 등이었다(中村資良 編 [35], p. 99). 富田家 일색으로 구성된 家族企業이었다.

10) 1915년 1차대전 여파로 鐵鑛이 폭등하는 가운데, 마침 中和郡의 한 鐵山을 발견했던 富田儀作은 그 광업권을 九州製銅會社 사장 安田敬一郎에게 넘긴 대금(10만 원) 가운데 7만 원을 가지고 은행설립자금을 삼았다. 당시 은행 설립의 최저 자본금이 50만 원이었음에도 그가 자본금 30만 원으로 은행설립인가를 받은 것은 그 명성 때문이었다. 富田精一 [30] pp. 350~351. 富田泰三은 儀作의 조카로서, 1906년에 來韓하여 富田合資 鑛業部 主任을 거쳐 1914년 三和牧場을 인수, 경영했고, 진남포상업회의소 常議員, 行之會委員을 지냈다. 1923년 현재 鎮南浦信託株式會社(1911년 설립) 취체역이다. 野田良二는 1904년에 내한하여 第58銀行 京城支店에서 근무하다 富田合資에 들어갔다. 1919년 이후 印刷·肥料販賣에 종사했다. 진남포에서 상업회의소 평의원, 府協議會員, 學校組合議員, 行之會委員, 青年會幹事를 지냈다. 1923년 현재 鎮南浦信託(株) 專務, 合資會社河添鐵工所 社員이다. 貴田忠衛 [27], pp. 110, 399, 中村資良 [35] 참조.

11) 영업사항은 諸預金, 저축예금 특별취급, 小產業者에 대한 정기대부 당좌대월 어음할인 年賦貸付 등이며, 이 밖에 國債, 유가증권, 영업용 토지·가옥·짐기를 소유할 수 있고, 債務辨濟를 위하여 流忍된 혹은 담보의 목적물로서 競賣된 동산·부동산도 소유 매각할 수 있었다(1916. 10. 30. 三和銀行定款).

12) 尹錫範 外 [18], 제8장

〈표 2〉 삼화은행의 換協正 은행(新規 체결분만)

1917	朝鮮商業은행 본점(京城) 남대문·인천·군산 지점, 漢湖農工은행 본점(경성)·대전·개성 지점, 慶尙農工은행 본점(대구)·초량 지점, 平安農工은행 본점(평양)·사리원·안주·신의주 지점, 安東은행 본점(安東縣·奉天·木溪湖·무순 지점, 第130은행 본점(大阪)·平壤 지점 등 19곳
1918	新義州은행 본점(신의주), 釜山商業은행 본점(부산)·통영·울산·진해 지점, 第100은행 본점(동경)·京都·大阪 지점, 滿洲商業은행 본점(安東縣)·舊市街*·奉天 지점, 朝鮮殖産銀行 水原과출소·木浦·義州 지점 등 14곳
1919	朝鮮殖産은행 井邑·全州·裡里·원산 지점, 元山商業은행 본점(원산) 등 5곳
1929	元山商業은행 청진지점, 平壤은행 본점(평양), 滿洲商業은행 本溪湖지점, 慶一은행 본점(대구) 등 4곳

자료 : 三和銀行 [9]. 1917년 6월까지의 換業務를 취급하지 않음. 1918년에는 農工銀行이 朝鮮殖産銀行에 합병됨. *는 1919년 상반기에 解除함.

본인 은행뿐이었다(〈표 2〉).

창립 후 삼화은행은 1차대전 特需를 배경으로 순조롭게 출발하였다. 예금은 제1기인 1916년 하반기의 6만 원대에서 1919년 하반기에는 33만 원대로 늘었고, 대출도 5만 원대에서 74만 원대로 늘었다(〈표 3〉, 〈표 4〉). 자기자본대비 수익률도 제1기 적자(324원), 제2기 4.5%(3,391원)를 거쳐 1919년 9%대까지 꾸준히 상승했다.¹³⁾ 그렇지만 1910년대 말에는 우려할 사태도 나타났다. 1919년 상반기 43만 원대였던 대출이 하반기에는 자기자본의 7.3배에 달하는 74만 원대로 급증한 것이다(〈표 4〉). 경기과열을 우려한 당국이 1919년 10월부터 金利引上, 貸出警戒 등 진축정책을 폈지만 잇따른 會社新增設, 투기열, 통화팽창, 물가상승으로 자금수요가 늘며 대출이 급증했고,¹⁴⁾ 그나마 대출의 대부분은 일본인에게 편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¹⁵⁾

반면에, 예금은 거의 늘지 않아 預貸率(대출/예금)은 1919년 상반기의 1.28에서 하반기에는 2.19로 증가했다.¹⁶⁾ 삼화은행은 폭발적으로 증대한 자금수요를 차입금, 특히 조선은행 등에서의 再割引 자금으로 충당했다.¹⁷⁾ 1919년 상반기 2만 5,000원이던 차입금

13) 수익률은 제3기 6.2%, 제4기 6%, 제5기 7.5%, 제6기 9.2%, 제7기 9%, 제8기 23.1%, 제9기 5.2%, 제10기 5.5%로 변했다. 제8기의 23.1%는 有價證券 賣買差益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었다.

14) 「삼화은행 제7기 영업보고서」. 이 시기 일본경제의 好況은 大內力外 [29] 참조.

15) 후술하듯 鎮南浦의 한국인들이 信一組合을 중심으로 결속하여 한국인 銀行設立을 집요하게 추진했던 데에는 삼화은행이 일본인 위주의 營業政策을 펼 때 대한 反撥心理도 작용했을 것이다.

16) 預貸率은 제1기 0.81, 제2기 1.18, 제3기 1.50, 제4기 1.26, 제5기 1.40, 제6기 1.28, 제7기 2.19, 제8기 1.60, 제9기 1.72기, 제10기 1.84였다.

〈표 3〉 三和銀行의 자금원천

(단위 : 圓, (%))

1	1916.12	75,000 (53.7)	64,730(46.3)	0 (-)	0 (-)
2	1917.6	75,000(40.7)	105,906(57.5)	0 (-)	3,391 (1.8)
3	1917.12	76,000 (28.6)	143,124(53.9)	34,312 (12.9)	12,030 (4.5)
4	1918.6	81,000 (25.1)	214,530(66.1)	16,840 (5.2)	11,478 (3.5)
5	1918.12	87,000 (16.8)	307,970(59.3)	103,055 (19.8)	21,221 (4.1)
6	1919.6	93,200 (18.9)	336,078(68.3)	25,343 (5.2)	37,414 (7.6)
7	1919.12	101,600(12.0)	338,296(40.1)	356,248 (42.4)	47,422 (5.6)
8	1920.6	10,600 (14.5)	406,574(53.4)	204,880 (26.9)	39,608 (5.2)
9	1920.12	136,200(17.5)	388,484(49.8)	230,632 (29.6)	24,218 (3.1)
10	1921.6	142,950(18.5)	372,187(48.1)	237,067 (30.6)	22,017 (2.8)

자료 : 『三和銀行 營業報告書』.

〈표 4〉 三和銀行의 자금원천

(단위 : 圓, (%))

1	1,710 (3.2)	- (-)	7,912 (15.0)	12,000	31,100 (59.0)	52,722
2	4,832 (3.9)	- (-)	19,022 (15.2)	16,400	84,665 (67.8)	124,920
3	3,814 (1.8)		45,930 (21.4)	23,550	141,148 (65.8)	214,441
4	3,733 (1.4)	14,627 (5.4)	63,335 (23.5)	12,909	174,914 (64.9)	269,518
5	14,568 (3.8)	26,119 (6.1)	200,707 (46.5)	8,054	181,798 (42.2)	431,245
6	6,770 (1.6)	43,100 (10.0)	170,422 (39.6)	6,150	204,074 (47.4)	430,516
7	69,987 (9.4)	107,749 (15.8)	125,159 (16.9)	12,092	417,321 (56.3)	741,479
8	84,630(13.0)	70,077 (10.8)	303,348 (46.7)	16,570	174,306 (26.9)	648,930
9	59,696 (8.9)	82,489 (12.4)	382,999 (57.4)	2,220	140,363 (21.0)	667,766
10	51,328 (7.6)	64,447 (9.6)	383,153 (57.0)	5,948	166,856 (24.8)	671,732

자료 : 〈표 3〉과 같음.

은 하반기에 35만 원대로 늘었고, 자금원천에서 차지한 차입금 비중도 1919년 상반기의 5.2%에서 하반기에는 42.2%로 급증하였다(〈표 3〉). 그리고 1919년 4월과 11월에는 진남포의 鎮南浦금융조합과 三和금융조합도 영업을 개시했다. 금융기관 사이의 경쟁도 치열해졌다.¹⁸⁾

17) 차입금에서 재할인금이 차지한 비중은 1919년 하반기 81.4%, 1920년 상반기 92.6%, 1920년 하반기 100%, 1921년 상반기 100%였다.

18) 진남포金組는 설립당시 조합원 22명(365구좌), 理事는 한국인 李孝健이었다(洪萬春 編 [23], p. 282).

이런 상황에서 1920년 3월 三和은행은 反動恐慌을 맞았다. 반동공황으로 일본과 한국의 경제는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 진남포도 마찬가지였다. 株價와 生絲, 綿絲, 米穀 등 상품가격이 폭락했고, 회사수익률이 감소하며 회사 상점의 도산 파탄도 잇따랐다. 財界가 整理期에 들어서며 신규대출은 두절되고, 신용의 근거는 무너졌으며, 금융은 더욱 경색되었다.¹⁹⁾ 특히, 1916년의 1,207만 원대에서 1919년의 4,660만 원까지 꾸준히 증가했던 鎭南浦港의 輸移出額은 1920년 4,184만 원, 1921년 3,631만 원으로 감소했다.²⁰⁾ 일본과 주로 거래해 온 진남포의 일본인들은 큰 타격을 입었고, 이들을 주요 영업 기반으로 삼아 온 삼화은행도 연쇄적인 타격을 받았다. 1919년 하반기에 74만 원이던 이 은행 대출액은 1920년 상반기에 64만 원대로 감소했고, 같은 기간 부동산 담보 대출이 12만 원대에서 30만 원대로 증가하며 총대출액에서 차지한 비중도 16.9%에서 46.7%로 늘었다(〈표 4〉). 1920년 하반기에는 예금도 40만 원대에서 38만 원대로 줄었다. 회수 불가능한 대출도 누적되었다.²¹⁾ 1920년 상반기의 대출감소와 하반기에도 계속된 불황으로 利子和 割引料 수입이 줄어, 1920년의 총수입은 상반기의 7만 원대에서 하반기에는 4만 원대로 격감했다. 1921년 상반기의 사정도 같았다. 부동산 담보대부 비중은 57.0%로 늘었고, 차입금은 23만 원대로 자기자본의 165.8%나 되었다. 자금원천에서 차입금이 점한 비중도 30.6%로서 전체 일반은행의 수위를 차지했다.²²⁾ 삼화은행은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했다.

Ⅲ. 平壤銀行의 설립과 大同銀行으로의 개편

1. 平壤銀行의 설립과 경영

일제하 평양은 한국 제1의 공업도시였다. 교통이 편하고, 대동강이 풍부한 공업용수를 제공했으며, 공업연료인 무연탄도 풍부했다. 대동강 연안에는 방대한 공업용지가 있고, 노동력도 풍부했다. 특히 이곳은 청·일전쟁의 격전장이었고, 러·일전쟁 때도

19) 三和銀行 [9] 제8기, 제9기.

20) 朝鮮總督府 編 [38], p. 267.

21) 1921년 6월 삼화은행 대출금 가운데 回收 불능액은 약 4만 원, 회수가 의문시 되는 것은 약 2만 원이고, 無擔保 融通어음에 의한 대출도 약 8만 원이었다(「1921. 10. 8. 三和銀行 合併에 關한 報告」, 平壤銀行 [12]).

22) 1921년 6월 한국에 본점을 둔 일반은행의 자금원천 대비 평균 차입금 비중은 7.4%이다. 20%를 넘은 은행은 三和 30.6%, 鮮南 29.8%, 大邱 25.2%, 新義州 21.3%, 釜山商業 20.6%, 元山商業 20.4% 등이다. 대구은행만 한국인 은행이다. 1921년 6월 전체 일반은행의 자금원천 구성비는 尹錫範 [18], 제8장 참조.

군사 요충지였다. 당연히 일본인 이입자가 급증했고, 1910년대에는 朝鮮兵器製作所, 海軍燃料廠平壤鑛業部, 專賣局煙草製造場, 大日本製糖會社平壤工場, 朝鮮電氣興業株式會社, 小野田시멘트 平壤工場 같은 대공장 건설이 이어졌다. 일본 대자본의 진출이 본격화한 것이다. 평양은 한국인 상공업자의 民族的 각성이 일찍부터 고양된 곳이기도 하였다. 조선후기에는 평안도의 정치·군사·행정 중심지이자 중국 교역의 통과지로서 松商(開城), 瀟商(義州)과 함께 柳商이라는 전국적 지명도를 가진 상인을 배출한 상업도시였다. 한말에는 기독교와 文明開化 사상의 영향을 받아 애국계몽, 실력양성, 국권회복 운동이 세력을 떨쳤다. 따라서, 이곳의 한국 상공인들은 일본인의 상권확대에 저항하여 일찍이 조직적 대응에 착수하였다. 1906년 平壤商業衆議所라는 상업회의소를 만들어 國債報償運動에 참여했고, 그 후 자본을 모아 磁器製造(株)를 설립하기도 하였다.²³⁾

한말이래 평양의 한·일인 상공업자들이 대립 경쟁하는 가운데 1910년대 초에는 이곳에 본점을 둔 일반은행 설립문제가 지역 현안으로 등장하였다. 당시 평양에는 朝鮮銀行 지점, 平安農工銀行 본점과 大和町지점, 漢城銀行(본점 서울)과 제130은행(본점 일본)지점이 영업중이었지만²⁴⁾ 이곳에 本店을 둔 一般銀行은 없었다. 資金需給을 조절할 은행설립이 긴급했던 것이다. 이에 1912년 말 은행령이 제정·공포되자 이곳 한·일인 실업가들은 은행설립의 主導權 장악을 위해 경쟁적으로 나섰다. 1914년에는 한국인으로 조직된 평양상업회의소의 실업가들이 자본금 50만 원의 西鮮銀行 설립을 기도했으나 실패했고,²⁵⁾ 1916년에는 그 해 5월에 일본인 중심으로 개편되었던 平壤商業會議所가 제1기(1916. 5~1917. 11)의 주요 사업으로 現地銀行 設立運動을 계획했으나 역시 실현되지는 않았다.²⁶⁾

23) 이상은 朱益鍾 [20], 柳承烈 [17]. 평양에는 朝鮮人商業衆議所와 1907년에 설립된 日本人商業會議所가 분립해 왔는데, 그 후 후자가 해산하자 전자는 조선인 상업회의소라 개칭하였다. 1914년 말 현재 會員은 약 200명, 議員은 18명이었다(柳承烈 [17], pp. 233~234).

24) 평양의 금융기관은 러·일전쟁 초 일제가 일본군의 출납업무등을 위해 제일은행 임시출장소를 설치한 것이 처음이다. 당초 軍用票 교환과 換業務 취급에 그쳤던 이 은행은 그 후 일반대출과 기타 은행업무를 개시했고, 한국은행 평양지점을 거쳐 조선은행 평양지점이 되었다. 평양농공은행은 1908년에 平壤·海州農工銀行이 합병하여 설립되었는데, 1909년 11월에 평양 大和町 출장소를 설치했다. 漢城銀行 평양지점은 1912년 9월에 설치되었다. 제130은행 평양지점은 원래 제58은행 평양출장소로 1906년 3월에 개설했으나, 그 후 이 은행이 제130은행에 합병되어 1913년부터 제130은행 지점이 되었다.

25) 堀和生 [26], p. 31. 1914년 1월 평양의 한국인 상업회의소와 기타 6개 한국인 조합은 연합회를 열어 그곳 소규모 저금기관들의 재산을 收合하는 방식으로 자본금 2만 여원의 組合을 만든 후 조합원에 대한 貸付·어음割引, 有價證券 매입 등을 실시할 예정이었다(柳承烈 [17], pp. 231~232). 1914년의 西鮮銀行 설립 기도는 한국인들의 이러한 움직임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26) 田中麗水編 [33], 제12편. 일제는 1915년에 朝鮮商業會議所를 재정하여 각지의 한일인 상업회의소를 통합했다. 평양상업회의소도 이 과정에서 일본인 중심으로 개편되었다(柳承烈 [17], pp. 241~243).

1910년대 말 1차대전 特需를 배경으로 각지에서 은행설립 붐이 일자 이곳의 한·일인 실업가들은 은행설립을 재추진하였다. 1919년 8월에는 평양·진남포의 일본인들이 平壤銀行 설립을 받기하여 총독부에 설립을 신청했고, 같은 해 한국인들도 平安銀行 설립을 추진하였다.²⁷⁾ 호경기로 자금 수요와 공급은 폭증했으나 이를 매개할 本店은행이 없어 불편했으며, 평양 같은 대도시에 本店銀行이 없다는 데 대한 이곳 有志 자존심도 작용했던 것이다.²⁸⁾ 1919년에 平壤·平安銀行 설립을 놓고 양측이 경합하자 총독부는 한국인에게 일본인 중심의 평양은행 설립에 동참하길 종용했던 것 같다. 그러나, 다수의 한국인 실업가들은 이를 거부했다.²⁹⁾ 이 시기에는 평양과 하나의 經濟圈에 속했던 진남포의 한국인들도 은행설립을 청원하고 나섰다. 1920년 4월 3일자 평양은행 취체역회 결의사항에 의하면 진남포의 한국인들은 信一組合³⁰⁾을 주축으로 일반은행 설립을 신청중이었고, 평양은행 취체역회는 이 문제를 논의하여 이들의 銀行설립 신청을 철회하게 하되, 만약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평양은행의 제안에 따라 이를 합병하며 그럴 경우 信一組合側 인사 2명을 평양은행 감사역으로 영입하기로 하였다.³¹⁾ 은행설립 주도권을 놓고 이 지역 韓·日人이 치열하게 경쟁했던 것이다. 平壤은행 설립세력, 平安銀行 설립세력, 진남포 信一組合 사이에 벌어진 은행설립 경쟁은 1919년 11월 14일 총독부가 평양은행 설립을 인가함으로써 평양은행 승리로 끝났다. 일제는 강점하 한국 제1의 공업도시로 성장하고 있던 평양지역의 은행 설립권을 한국인에게 주지 않았던 것이다. 다만, 총독부는 평양은행 측에 한국인 일부를 받기인에 포함시켜 형식상 韓·日人 合作형태를 취함으로써 그 동안 경쟁관계에 있던 한국인들을 무마토록 요구한 듯

27) 平安銀行 설립 세력은 1919년에 은행설립을 위해 “平壤銀行과 競願”했으나 “妥協을 拒否하여 不認可” 되었다고 한다(堀和生 [26], p. 32).

28) 大同銀行 [5], 1925. 8. 11.

29) 堀和生 [26], p. 20.

30) 信一組合은 洪萬春 編 [23], p. 288, 『開闢』, 1924. 9, p. 111 참조. 1924년 10월 25일 鎮南浦의 한국인들은 자본금 10만 265원의 信一合名會社를 설립하였다. 1925년 현재 社員은 대표 李鍾燮 外 35명이고, 동산·부동산의 賣買·仲介·管理, 産業資金 融通, 代理業, 前 各項의 附帶 事業을 했다(中村資良 編 [35], p. 62). 한국인이 출자하여 한국인을 상대로 金融信託業, 動產 不動產 賣買·仲介·管理, 金融, 金錢貸付業을 경영한 것인데, 한때 운영난을 겪었지만 1924년 11월 체제를 정비하여 1925년에는 신용대출 3만 7,975원, 담보대출 1만 8,652원을 기록했다(洪萬春 編 [23], p. 283). 1920년에 은행설립을 신청했던 信一組合은 이 회사의 前身이 아니었을까 한다. 李鍾燮은 1889년생으로 黃州郡 靑龍面長을 거쳐, 1917년 진남포에서 穀物商을 개업하고 精米所도 경영했던 ‘西鮮 米界의 有力者’였다. 1923년 진남포창고(株)취체역, 진남포의 한국인들이 설립한 合資會社 鎮南浦共信社의 無限代表社員이 되었다. 1923년 府會議員이 된 후 매년 재선했고, 1931년 평남도회의원에 취임했다. 1923년 진남포 상업회의소 의원, 1930년 會頭, 1935년 특별의원이었다(田中麗水 編 [33], 제13번).

31) 「1920. 4. 3. 평양은행취체역회결의록」의 “1. 현재 出願의 信一組合 干係 銀行 出願을 철회할 것, 2. 出願中의 銀行 許可의 경우 평양은행 제안대로 합병할 것, 3. 前二項의 承認의 경우는 此際 평양은행에 감사역 2명을 信一組合에서 받아들일 것” 참조.

하다. 당시 총독부는 특정회사 설립을 놓고 한·일인이 치열하게 경쟁할 경우 內鮮一體를 표방하며 한국인 일부를 참여시킬 것을 종용하였다.³²⁾ 1920년 1월 평양은행 주식 모집 때 발기인 60명 가운데 한국인 14명이 포함된 것은 이 때문이었을 것이다.³³⁾

일제는 평양은행 설립조건으로 三和銀行과의 合併도 요구했던 것 같다. 삼화은행을 그대로 둔 채 평양에 별도 은행을 설립한다면 두 은행 모두 큰 타격을 받을 것이 분명했으므로 평양은행 발기인들은 적당한 시기에 자본금 30만 원의 三和銀行을 합병하여 자본금을 2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하고 평양은행 자본금을 170만 원(3만 4,000 주, 남입 1/4)으로 정했다.³⁴⁾ 삼화은행 두취 富田儀作이 평양은행 발기인 겸 최대 주주로 참여한 것은 두 은행 합병이 전제된 행동이었다. 지방 중소기업의 경쟁격화를 은행합동으로 해소하려 한 것이다.

평양은행은 1월 15일부터 열흘간 주식을 모집하여 2월 27일 제1회 주식대금 납입을 마쳤다. 평양과 진남포 주주가 주식의 95.1%를 인수하여 창립 주역을 맡았고,³⁵⁾ 일본인이 주주의 76.5%, 주식의 86.5%를 차지했다.³⁶⁾ 50주 이하 주주가 전체의 66.2%였을 만큼 - 주주의 33.1%는 10주 이하를 소유 - 소액주주가 대종이었다(<표 5>).³⁷⁾ 그렇지만

32) 『매일신보』, 1920. 1. 28.

33) 한국인은 평양의 李鎮泰(平安農工銀行長 역임, 평양상의 副會頭·특별평의원, 朝鮮燒酒 監事), 李春燮(平壤商議 상무위원), 韓允燦(同 상무위원), 鄭奎鉉, 鄭觀朝, 金南鎮(同 부회주), 鮮于錫, 진남포의 李孝鑑(진남포商議 부회주), 魯起元(信一組合 監事役 역임), 林仁奭, 吳致周, 權正敏, 洪性弼, 金正民 등이다. 이들의 경력은 오미일(1995) 참조. 일본인은 평양 출신이 大橋恒藏, 伊藤左七, 稻葉善之助(病院長, 請負業), 板倉菊次郎, 富田晉二(平壤商議 평의원, 材木商 富田商會主), 奥田英一郎, 奥田延之助(평양 日本人商議 창립위원, 평양상의 부회주, 活版業), 脇坂善之助(평양상의 평의원, 서적문구상, 인쇄업, 平壤繁榮會長), 金子重寬, 河合勝次郎, 川橋圭三郎(文具 運動具商), 梶道夫(土地管理, 인쇄業), 吉見岩吉, 玉眞茂次郎(평양상의 발기인), 辰己彦三郎(丸三吳服店 주임, 平壤信託 설립 참여), 成瀬英郎, 室亨, 村井正明(평양상의 상무위원), 内田錄雄(평양상의 상무위원, 百花園主), 野路曾吉(평양상의 평의원, 잡화상), 久保順吉(평양상의 평의원, 賣藥·광산업), 山根政治, 山村章(평양상의 발기인, 吳服商), 禎吉次(병원장), 松永信吉(金貨業, 材木商), 松崎久, 藤本達次郎(병원장), 藤山定七, 小林彌平, 淺海新太郎, 在間行太(평양상의 평의원, 잡화상), 鬼頭間逸, 菊名仙吉(평양상의 평의원, 藥種食料品商), 宮川五郎三郎, 毛利辰次郎(평양상의 상무위원, 雜貨商: 盛昌洋行), 森田奈良治(평양상의 발기인, 藥種業), 杉下重郎(평양상의 평의원) 등 37명이다. 평양의 일본인 실업가가 거의 망라된 셈이다. 이 밖의 일본인은 진남포의 馬場嘉藏, 原田鐵策, 西崎鶴太郎, 富田儀作(이상 진남포商議 會頭 역임), 鈴木種一(진남포商議 부회주 역임), 田邊佐助, 新井新藏(이상 진남포商議 창립위원), 櫻井秀之助 등 8명과 鳳山郡 山本圭次이다. 『毎日申報』, 1920. 1. 18.

34) 中村資良 [35], p. 20.

35) 창립 주주(315명, 3만 4,000주)의 지역 분포는 平壤 230명(2만 660주), 鎮南浦 51명(1만 1,680주), 安州 6명(270주), 兼二浦 4명(260주), 宣川 1명(200주), 사리원 1명(200주), 新義州 2명(170주), 黃州 2명(135주), 江西 3명(120주), 奉天 1명(70주), 京城 3명(60주), 安東 3명(50주), 平原郡 4명(45주), 開城 1명(35주), 肅川 1명(20주), 寺洞 1명(15주), 熙川 1명(10주) 등이다(平壤銀行 [11], 제1기).

36) 1기 말인 1920년 6월 말의 한국인 주주는 74명(23.5%), 지주수는 4,580주(13.5%)였다.

37) 창립 당시의 주식소유 집중도는 지니계수로 0.7449였다. 그 후 제4기의 0.7439까지 낮아졌다가, 제5기부터 상승하여 제9기에 0.7685로 정점에 달했고, 제10기와 제11기에 0.7684와 0.7657로 다시 낮아졌다.

〈표 5〉 平壤銀行 창립 株主의 소유 株式數별 분포

5,001~	1명	0.3%	-	51~100	53명	17.4%	12명
1,001~	2	0.7	-	11~50	101	33.1	20
501~1,000	7	2.3	1명	~10	101	33.1	31
101~500	40	13.1	10	計	305	100.0	74

자료: 『平壤銀行 제1기 營業報告書』.

〈표 6〉 平壤 大同銀行의 500株 이상 소유 株主

富田儀作	6,570	7,210	7,370	삼화은행 두취, 진남포商議 議員·會頭
山根政治	1,310	1,310	1,350	평양상의 발기인·상무위원, 雜貨商(山根商店主), 평양신탁 취체역, 丸京吳服店 감사
伊藤佐七	1,300	1,300	1,360	평양상의 발기인·평의원, 貿易商, 평양신탁 사장, 평양전기 취체역, 丸京吳服店 취체역
奥田英一郎	1,000	1,000	705	평양신탁 취체역
吉見岩吉	1,000	-	-	(株)共益社 평양지점 主任, 時計·貴金屬商, 평양신탁 전무, 丸京吳服店 취체역
櫻井秀之助	1,000	-	-	평양신탁 감사역, 鎮南浦物産市場 취체역
淺海新太郎	1,000	1,000	1,000	평양신탁 취체역
鬼頭間逸	800	800	700	鬼頭兼次郎商店 취체역
宮川五郎三郎	650	750	750	鎮南浦日本人商議 창립위원, 평양일본인상의 창립위원·회두, 평양상의 발기인·특별평의원, 평양에서醬油釀造業(1906) 경영, 평양전기 사장
李孝健	600	-	600	鎮南浦 三和商業會議所 會計(1913), 진남포商議副會頭
松崎久	500	600	575	평양商議 평의원, 丸京吳服店 주주, 朝鮮燒酒 감사
大橋恒藏	500	560	-	평양商議會頭, 大橋組(請負業)主, 평양전기 취체역, 丸京吳服店 주주, 西鮮造林合資社長
金子重寬	500	500	-	病院長
橫山直槌	-	3,670	4,230	
朴承稷	-	800	800	共益社 사장
小林彌平	-	510	510	

자료: 平壤銀行 [11], 大同銀行 [4], 1921. 6, 大同銀行으로 개편, 1925. 6, 朝鮮商業銀行과 합병.

平壤信託(株)(株)丸京吳服店: 1920년 4월 설립, 平壤電氣(株): 1911년 설립, (株)鎮南浦物産市場: 1911년 설립, 朝鮮燒酒(주): 1919년 설립.

〈표 7〉 평양·대동은행의 임원

橫山直槌	頭	頭專	取會	山根政治	監	"	"	"	"
富田儀作	取	"	"	李孝健	감	"	"	-	"
大橋恒藏	취	"	"	櫻井秀之助	감	-	"	"	"
伊藤佐七	취	"	"	西崎鶴太郎	-	감	"	"	"
宮川五郎三郎	취	"	"	李鍾燮	-	-	-	감	"
松崎久	취	"	"	豐田明敬	-	-	-	-	頭專
李鎮泰	취	"	"						

자료: 〈표 6〉과 같음. 4기 이후는 대동은행임. 松崎久는 1923년 8월 지배인에서 해임됨.
富田, 李孝健, 櫻井, 西崎는 진남포 거주자이고, 나머지는 평양 거주자이다.

〈표 8〉 平壤은행의 換協定 은행(제2기 말 현재, 1920. 12. 31)

朝鮮殖産	本店(京城), 개성·대전·군산·목포·대구·부산·마산·해주·사리원·진남포·安州·義州·新義州·博川·인천·宣川·江界·寧邊·원산 支店
第十八	本店(長崎), 大阪·大阪西·佐世保·熊本·京城·인천·용산·군산·목포·부산·원산 支店
滿洲商業	本店(安東縣), 木溪湖·奉天·吉林·支店
三和	本店(진남포)
慶一	本店(대구)
朝鮮*	本店(京城), 東京·神戶·大阪·下關 支店

자료: 『平壤銀行 營業報告書』. *는 제2기에, 나머지는 제1기에 협정 맺음.

설립의 결정적 역할은 평양과 진남포 상공업계를 좌우하고 있던 일본인 대주주들이 맡았다(〈표 6〉). 특히 三和銀行 두취 富田儀作 주식의 19.3%(6,570주)를 인수하여 최대 주주가 되었고, 平壤商議 會頭, 常務委員, 特別評議員, 評議員 등을 지낸 大橋恒藏, 山根政治, 宮川五郎三郎, 松崎久와 鎮南浦商議 副會頭를 지낸 李孝健 및 지역 유지 伊藤佐七, 奧田英一郎³⁸⁾ 등이 대주주로 설립에 참여했다.

창립총회는 1920년 3월 13일에 열렸다. 중역을 선임했고 頭取는 朝鮮銀行이 추천한 第一銀行 초대 진남포지점장·朝鮮銀行庶務局長 출신인 橫山直槌를 선임했다(〈표 7〉).³⁹⁾ 영업은 4월 1일부터 시작했다. 6월 19일에는 第130銀行 평양지점장을 지낸 취체

38) 1880년 大阪 출생으로 大阪五百井商店에서 상업을 익힌 후 來韓하여 평양에서 奧田伊之助의 養子가 되어 1920년 學校組合評議員이 됨. 1921년 辭職하고 米雜穀·海產物·繩가마니·平壤栗의 委託販賣에 종사하였다(貴田忠衛 [27], p. 194).

39) 平壤銀行 [11], 제1기, 1920. 6. 30, 『동아일보』 1920. 5. 14. 〈표 8〉의 西崎鶴太郎은 兵庫縣 출신으로

〈표 9〉 平壤·大同銀行의 資金源泉

(단위: 원, (%))

1	1920.6	425,000 (46.8)	379,576 (41.8)	99,271 (10.9)	4,456 (0.5)
2	1920.12	425,000 (27.0)	716,124 (45.5)	373,428 (23.7)	58,436 (3.7)
3	1921.6	427,300 (21.3)	1,172,335 (58.4)	318,006 (15.9)	88,293 (4.4)
4	1921.12	505,700 (13.7)	1,723,785 (46.5)	1,237,417 (33.4)	236,983 (6.4)
5	1922.6	516,700 (12.9)	1,976,229 (49.3)	1,279,662 (31.9)	233,365 (5.8)
6	1922.12	535,700 (13.5)	1,680,035 (42.2)	1,535,255 (38.6)	230,523 (5.8)
7	1923.6	548,700 (13.1)	2,108,442 (50.3)	1,297,292 (31.0)	235,720 (5.6)
8	1923.12	562,000 (12.7)	1,992,769 (45.2)	1,606,471 (36.4)	250,691 (5.7)
9	1924.6	575,000 (12.3)	2,431,123 (52.1)	1,439,157 (30.9)	218,278 (4.7)
10	1924.12	589,000 (12.6)	2,564,931 (54.8)	1,392,415 (29.7)	134,435 (2.9)
11	1925.6	598,000 (13.0)	2,100,042 (45.8)	1,769,388 (38.6)	115,826 (2.5)

자료: 〈표 6〉 과 같음. 4기 이후는 대동은행임.

〈표 10〉 平壤·大同銀行의 담보별 대출금

(단위: 원, (%))

1	39,450	10,476	156,900 (22.6)	-	488,100	694,926
2	327,899	21,806	654,821 (50.5)	-	291,859	1,296,385
3	353,355	95,604	1,136,993 (66.6)	-	119,982	1,705,932
4	459,981	258,709	2,185,724 (64.7)	2,150	474,056	3,380,620
5	345,026	148,445	2,533,869 (68.0)	119,310	580,425	3,727,076
6	325,797	110,463	2,526,862 (68.9)	60,567	644,591	3,668,281
7	296,359	61,226	2,805,481 (72.5)	118,121	587,916	3,869,103
8	330,832	242,127	2,683,036 (66.6)	237,078	536,411	4,029,483
9	321,288	137,910	2,894,321 (67.8)	378,248	537,912	4,269,678
10	315,636	272,762	2,776,000 (64.4)	223,132	725,177	4,312,707
11	263,181	135,474	2,550,890 (61.6)	279,069	909,604	4,138,218

자료: 〈표 6〉 과 같음. 4기 이후는 대동은행임.

역 松崎久를 지배인으로 선임했다. 국내외 은행들과 換去來 협정도 체결했다. 고객이 대부분 일본인이어서⁴⁰⁾ 換協정은 慶一은행을 제외한 일본인 은행들과 체결하였다(〈표

1905년 진남포에 들어와 戰寧鐵山을 채굴하여 致富한 후 鎮南浦 民團·府會 의원, 平南道會 의원, 평양商議 의원·會頭를 지냈고, 진남포電氣(1910년 설립), 진남포水産(1909), 진남포物産市場(1911), 진남포汽船合資(1912), 진남포倉庫(1919) 社長 重役으로도 활동했다. 청·일전쟁 때 勳8等과 旭日章·從軍徽章을 받았고, 1915년에는 大典記念章을 하사받고 御賜賜餐에도 초대받았다. 진남포와 西鮮의 重鎮이었다(田中麗水編 [33], 13편).

8). 의욕적으로 영업을 개시한 것이다. 평양은행은 창립 직후 발발한 反動恐慌으로 제 1기 말에 赤字를 보았으나, 그 후 예금과 대출을 늘리며 업세를 크게 신장시켰다. 1920년 상반기에 37만 원대였던 예금은 1921년 상반기에 117만 원대로 늘었고, 대출은 69만 원대에서 170만 원대로 증가했다(〈표 9〉, 〈표 10〉).⁴¹⁾ 1921년 상반기에는 자기자본 대비 수익률도 적자에서 5.5%로 회복했다.⁴²⁾ 그렇지만 불안 요소도 남아 있었다. 그 가운데 하나는 한국인 고객을 끌어들이지 못하여 영업기반이 일본인 사회로 한정된 점이었다.

이곳의 한국인들이 은행설립 주도권을 빼앗겨 반발한데다,⁴³⁾ 영업개시 직후인 1920년 8월에는 自作自給, 國產品 獎勵, 保護貿易 등을 내세우며 한국 최초로 物産獎勵會를 발기했으므로,⁴⁴⁾ 한국인 고객 흡수는 더욱 어려웠다. 경영상에도 여러 문제가 드러났다. 대출액 가운데 부동산 담보 대출이 1920년 상반기의 22.6%에서 1921년 상반기에는 일반은행 평균 27.9%를 훨씬 웃도는 66.6%로 증가했고(〈표 10〉), 차입금도 31만 원대로 늘었다. 대부자금이 固定되며 재무구조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창립과 함께 통합하기로 했던 삼화은행도 여전히 영업중이었다. 삼화은행과의 합병문제가 재차 현안으로 떠올랐다.

2. 三和銀行 合併과 大同銀行으로의 개편

평양은행 취체역회가 삼화은행 합병문제를 거론한 것은 영업개시 이틀 후인 1920년 4월 3일, 信一組合의 銀行설립 문제를 논의한 바로 그 날이었다. 三和銀行 두취이자 평양은행 취체역인 富田儀作도 참석한 이날 회의는 삼화은행 합병을 既存의 방침대로 조속히 진행하며, 합병 후 行名을 平壤三和銀行으로 하기로 하였다.⁴⁵⁾ 5월 8일 취체역회는 3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삼화은행이 ‘善良한 去來’를 계속하면서 은행을 整理하

40) 평양은행 후신인 大同銀行의 1924년 말 현재 민족별 대출 점유율은 일본인 83.7%, 한국인 15.6%, 외국인 0.6%였다. 당시 한국인 은행의 평균은 18.8%, 78.7%, 1.9%, 일본인 은행의 평균은 84.2%, 15.3%, 0.5%, 일본 지점은행의 평균은 91.4%, 6.4%, 2.2%였다(尹錫範 外 [18], 제8장).

41) 預貸率은 제1기 1.83, 제2기 1.81, 제3기 1.46, 제4기 1.96, 제5기 1.89, 제6기 2.18, 제7기 1.84, 제8기 2.02, 제9기 1.76, 제10기 1.68, 제11기 1.97이었다.

42) 수익률은 제1기 -0.5%, 제2기 5.3%, 제3기 5.5%, 제4기 7.7%, 제5기 9.9%, 제6기 8.2%, 제7기 8.1%, 제8기 7.5%, 제9기 7.6%, 제10기 5.3%, 제11기 -1.8%였다.

43) 한국인들은 평양은행 설립 후에도 한국인 現地 銀行 설립이 急先務임을 계속 강조하였다(朱益鍾 [21]).

44) 1922년 6월에 창립. 서울에서 물산장려 운동이 전개된 것은 1923년 초이다. 발기인의 압도적 다수는 기독교계 교사, 청년, 학생이었지만 실제 큰 역할을 한 것은 상공업자들이었다(오미일 [16]).

45) 平壤銀行 [13], 1920. 4. 3 頭取 橫山, 취체역 富田, 宮川, 伊藤, 李鎮泰, 松崎久가 참석했다. 삼화은행 합병문제는 평양은행 창립 초부터 共知의 사실이었다(『동아일보』, 1920. 4. 29).

게 하되, 整理가 마무리 되는 대로 合併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 기간에는 평양은행 직원을 출장시켜 整理를 돕고, 향후 모든 貸出을 평양은행에 협의·보고함은 물론, 總計定殘高表를 매일 제출하고 여타영업상황도 매주 1, 2회 보고하게 하였다. 3개월 후에도 합병이 실행되지 않자, 8월 14일 평양은행 취체역회는 삼화은행과의 합병교섭을 두취(橫山)에게 일임했고, 이를 위한 株主協議會 開催도 결의하였다. 8월 20일 취체역회는 合併株總을 9월 20일경 열며, 引受合併에 필요한 삼화은행의 債權·債務 조사를 두취와 지배인(松崎久)에게 일임하기로 했다.⁴⁶⁾

1920년대 전반기 일본에서는 中小銀行 合併정책이 강력히 추진되었다. 반동공황으로 수많은 중소은행들이 파산 동요하자 銀行新設·支店濫設 규제, 不動產 貸付 제한, 地方中小銀行 합동정책을 강력히 추진한 것이다.⁴⁷⁾ 이와도 관련해서 이 시기 총독부는 삼화·평양은행 합병을 강력히 촉구하였다.⁴⁸⁾ 여론도 그러하였다. 소은행이 합동하여 大은행이 되면 資本충실, 經費절약, 競爭완화, 人才·信用 확보에 유리하여 주주와 고객 보호는 물론 은행자금의 활용도도 높일 수 있다고 보았다.⁴⁹⁾ 그러나, 합병은 朝鮮銀行이 조정에 나선 속에서도 1920년을 넘기도록 마무리되지 않았다. 반동공황으로 두 은행 특히 삼화은행 경영이 악화되어 銀行整理가 난관에 부딪쳤고, 따라서 합동문제도 쉽게 조정되지 않은 것이다.⁵⁰⁾ 합병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1921년 5월이었다. 평양은행 증역회가 삼화은행 합병에 따른 '合併假契約金 締結의 件'을 확정하면서 합병 후 行名을 西鮮銀行으로 하며, 임시총회를 열어 합병계약 승인, 자본금 증가, 정관변경 등을 결의하기로 한 것이다.⁵¹⁾ 6월 10일 임시주총은 합병을 승인하였다. 자본금을 200만 원으로 늘리며, 평양은행 본점을 새 은행 본점으로 하고, 삼화은행 본점은 새 은행 진남포 지점으로 하기로 하였다. 西鮮銀行이라는 명칭에는 이론이 제기되었다. 7월 20일 임시주총은 조선은행에 결정을 일임했고, 조선은행이 大同銀行이라는 명칭을 제시하여 합병은 완전 타결되었다.⁵²⁾ 두 은행 합병은 평양은행이 삼화은행을 흡수하고 이름

46) 平壤銀行 [13], 1920. 5. 8, 8. 14, 8. 20.

47) 일본의 은행합동정책과 실태는 加藤俊彦 [24], 後藤新一[39] 참조.

48) 1920년 8월 20일 취체역회에서 橫山두취는 "총독부 재무국장이 招電으로 出頭케 한 후 삼화은행과의 合併 遲延 이유를 설명하길 요구하므로 자세히 說明 了解케 했다"고 보고했다. 平壤銀行 [13], 1920. 8. 20.

49) 『동아일보』, 1923. 4. 5.

50) 평양은행 주총에서 두취 橫山은 "三和은행 合併은 창립당시부터의 豫定計劃으로서 점차 진척 중이나, 두세 가지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 있어 朝鮮銀行이 진력중이다. 며칠 내로 大原支配人(朝鮮銀行 平壤支店 지배인)이 三和銀行 主腦者와 面談할 것이므로 곧 可視化될 것"이라고 답했다. 平壤銀行 [10], 1921. 1. 28.

51) 平壤銀行 [12], 1921. 5. 12.

52) 平壤銀行 [10], 1921. 6. 10, 7. 20. 西鮮은 1914년 한국인들이 은행설립을 추진하면서 사용했던 명칭이다. 그래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이다.

만 대동은행으로 고친 흡수합병이었다. 평양은행 임원은 모두 대동은행 임원이 되었고 (<표 8>), 營業期數도 평양은행의 기수에 따라 1921년 하반기를 제4기로 하였다.

Ⅳ. 大同銀行의 經營危機와 朝鮮商業銀行으로의 吸收合併

1921년 9월 30일 합병총회를 거쳐 성립된 大同銀行은 10월 1일 영업을 개시했다. 경기는 크게 회복되지 않았지만 평양에서는 航空線과 大同江 橋梁의 건설, 移住者와 인구증가에 따른 건축 붐,⁵³⁾ 平元鐵道 부설전망 증가 등으로 預貸金이 모두 늘었다. 수익률도 1921년 상반기의 5.5%에서 1921년 하반기 7.7%, 1922년 상반기 9.9%로 상승했다. 그러나, 우려할 사태도 나타났다. 우선 이 은행은 평양과 진남포의 일본인들이 설립했기 때문에 顧客의 대부분이 일본인이었다(<표 11>). 1924년 말 이 은행 평양소재 본·지점의 민족별 예금액은 일본인 90.9%, 한국인 8.9%, 외국인 0.2%였고, 대출액도 일본인 93.7%, 한국인 6.3%로서 일본인의 예·대출 점유율이 9할 이상이었다. 진남포지점도 같았다. 일본인은 예금의 83.2%를 점한 반면, 한국인은 13.0%를 점한데 그쳤고, 대출도 일본인은 61.1%를 점한 반면, 한국인은 36.3%를 점한데 그쳤다. 은행의 영업기반이 이곳 일본인 사회로 한정되었던 것이다.

게다가 당시 평양에는 朝鮮·朝鮮殖産이라는 거대은행과 자본규모 금융기법에서 평양은행을 압도한 일반은행(安田, 漢城)이 영업중이어서 경쟁도 격렬했다. 한국인은

<표 11> 평양 진남포의 은행별 예대금의 민족별 점유율(1924년 말 현재)

(단위 : (%), 원)

	민족	예금			대출			총액	
		점유율	점유율	점유율	점유율	점유율	점유율		
평양	朝鮮	(66.0)	(9.6)	(24.4)	559,032	(78.0)	(22.0)	(-)	3,934,397
	殖銀	(87.6)	(10.7)	(1.7)	2,052,369	(56.1)	(42.1)	1.8	3,984,955
	安田	(89.1)	(10.8)	(0.1)	1,157,776	(49.4)	(50.3)	0.3	764,003
	漢城	(57.7)	(34.5)	(7.9)	1,862,085	(29.3)	(69.6)	1.2	1,946,542
	大同	(90.9)	(8.9)	(0.2)	1,615	(93.7)	(6.3)	(-)	3,179,126
진남포	朝鮮	(85.5)	(3.2)	(11.3)	623,448	(96.2)	(3.5)	0.2	6,196,032
	殖銀	(89.6)	(9.6)	(0.9)	1,182,272	(30.4)	(68.1)	1.5	3,409,932
	大同	(83.2)	(13.0)	(3.8)	510,164	(61.1)	(36.3)	2.6	1,013,571

자료 : 朝鮮總督府, [37].

53) 1921년 하반기에 家屋 1,689동이 新築되고, 人口도 6,919명 증가했다. 大同銀行 [4], 제4기.

행인 漢城銀行 평양지점은, 1922년 6월 평양에 물산장려회가 창립되어 한국인의 커다란 호응을 얻은 것과도 관련해서, 이 지역 한국인 예금의 54.2%를 흡수하며 나름대로의 영업기반을 가졌다. 일본인을 주요 고객으로 삼아 평양은행과 영업기반이 겹쳤던 安田銀行 평양지점⁵⁴⁾ 이 지역 일본인 예금의 18.0%를 잠식하며 預金超過 현상을 보였다. 1920년대 전반기 일본 보통은행 支店들은 換去來上의 편의를 내세워 일본과 直去來하는 일본인 상점들을 주요 고객으로 끌어 들였고, 여기에 '堅實有力한 定期預金者와 특히 富豪 및 財産을 비밀에 부치고자 하는 預金者'의 예금을 흡수하여 항상 預金超過를 보였는데,⁵⁵⁾ 安田銀行 평양지점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이다.

1920년대 초에는 반동공황 이래의 財界 不安마저 계속되었다. 이에 大同銀行의 부동산 담보대출 비율은 1921년 6월의 66.6%에서 1923년 6월에는 72.5%로 올랐고, 1921년 6월 31만 원대였던 차입금은 삼화은행 합병에 따른 債務引受와도 관련해서 1921년 12월 123만 원, 1922년 6월 127만 원, 1922년 12월 153만 원 대로 증가했다(<표 9>).⁵⁶⁾ 자금원천에서 차입금이 차지한 비중도 1921년 6월 15.9%에서 1921년 12월 33.4%, 1922년 6월 31.9%, 1922년 12월 38.6%로 계속 상승했다. 1923년 하반기에는 水害·海溢을 당한 데 이어, 일본에서 關東大地震이 발발하여 地震恐慌까지 겹쳤다. 일본경제가 타격을 받자, 일본과 주로 거래해 왔던 평양의 일본인들이 큰 타격을 받았고, 이들을 주요 고객으로 영업해 온 대동은행도 연쇄적 타격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이 은행의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은 1923년 12월 66.6%, 1924년 6월 67.8%로 여전히 높아 대출자금이 固定되었고(<표 10>), 차입금도 1923년 12월에는 자기자본 대비 286%인 160만 원, 1924년 6월에는 250%인 143만 원으로 여전히 높았다. 전체 자금원천에서 차지한 차입금 비중도 1923년 12월 현재 36.4%로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표 9>).⁵⁷⁾

이에 1924년 9월 大同은행은 대대적인 경영쇄신에 착수했다. 취체역 중에서 두취 1명, 전무 취체역 1명을 호선했던 職制를 고쳐 취체역 중에서 취체역회장 1명, 전무 취체역 1명을 호선했다.⁵⁸⁾ 임원도 개선하여 두취이자 전무인 橫山直槌를 취체역회장으로 불러 앉히고 취체역 松崎久를 해임한 후, 조선은행의 추천을 받아 慶尙農工銀

54) 원래는 제130은행이었으나 1923년 安田系 은행의 大同合同으로 安田銀行이 되었다.

55) 『동아일보』, 1923. 4. 10.

56) 차입금 증가로 지불이자도 1922년 상반기 8만 원대에서, 1922년 하반기 11만 원대, 1923년 상반기 10만 원대로 증가하였다.

57) 경영악화는 1923년 상반기에 平壤府協議會에서 문제될 정도였고, 朝鮮實業銀行과의 합병설까지 떠돌았다(『동아일보』, 1923. 4. 22).

58) 大同銀行 [5], 1924. 9. 17, 大同銀行 [6], 1924. 9. 20, 제1회 취체역회장에게는 취체역회를 주재할 권한을 주어 은행의 중요사항을 토의케 했고, 專務에게는 은행을 代表하며 行務를 통괄처리케 하였다. 이 날 이후 취체역회 결의 때에는 그 決議와 이해관계를 갖는 重役의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중역들의 은행운영 방식에 문제가 많았던 셈이다.

行 副支配人·朝鮮商業銀行 支配人·朝鮮實業銀行 專務를 역임한 豊田明敬을 專務로 영입하여 은행을 代表하게 했다. 11월 1일에는 '行內整理 와 '人心刷新 을 위하여 本店, 鷄里출장소, 鎭南浦지점, 載寧지점 지배인을 교체하였다. 수뇌부를 전면 교체하여 경영쇄신을 꾀한 것이다. 10월 1일에는 행원에 대한 도시락 지급과 합숙소 운영을 폐지하는 등 經費節減·合理化도 추진하였고, 납입자본을 증액하여 자기자본을 늘리는 방안도 강구하였다.⁵⁹⁾ 일본인 사회로 한정되었던 영업기반을 한국인 사회로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하였다. 다음은 신임 은행대표 겸 전무 豊田明敬의 말이다.

“本銀行은 地方銀行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동시에 또는 當地 조선인 諸氏의 援助를 受하는 것이 가장 肝要한 일이라고 考慮하는 바 종래의 실적에 鑑하여 조선인 諸氏가 별로히 이용하지 않은 듯함은 매우 遺憾으로 思하는 바이다. 금후로는 일층 노력하려고 생각하는데 나는 옛날 農工銀行·朝鮮商業銀行 등을 경영하여 본 관계로 조선인 諸氏와의 거래에 대하여는 상당한 이해가 있다고 自信하는 바인즉 의견이나 기타 생각하는 바가 있으면 주저 없이 말씀해 주기를 바라는 바”⁶⁰⁾

영업기반이 일본인 사회로 한정된 것이 대동은행의 최대문제라고 지적하며, 그 해소에 주력할 방침임을 언명한 것이다. 그러나, 영업기반을 한국인 사회로 확장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물산장려 운동이 서울에서 침체기에 들어선 1924년 이후에도 평양에서는 여전히 큰 호응을 얻었으므로 더욱 그러했다.⁶¹⁾ 은행 성적은 호전되지 않아⁶²⁾ 1924년 12월 부동산 담보 대부 비중은 거둬들인 整理에도 불구하고⁶³⁾ 64.4%로 여전히 높았고, 차입금도 자기자본의 236%인 139만 원이나 되었다. 1925년에는 은행정리를 위해 1월부터 저리자금을 재융통 받았지만, 때마침 平壤府 學校組合金庫 문제로 모종의 流言蜚語까지 盛行하여 3월 초 약 40만 원의 예금이 빠져 나갔고, 5월에는 조선상업은행과의 합병 소문마저 파다했다. 이에 1924년 12월에 약 99만 원이었던 대동은행 본점의 조선 은행 차입금은 1925년 3월 중순 140만 원, 7월 150만 원으로 증가했다.⁶⁴⁾ 결국 1925년 6

59) 『동아일보』, 1924. 11. 5, 大同銀行 [6], 1924. 9. 27, 제2회.

60) 『동아일보』, 1924. 11. 5.

61) 朱益鍾 [21]. 후술하듯 조선상업은행은 1925년 10월 대동은행을 합병하면서 평양·진남포 지점을 자신의 지점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그 해 말에도 평양·진남포 지점의 일본인 예금 비중은 91.4%, 83.2%로서 한국인 예금 흡수율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安田은행 평양지점의 일본인 예금 비중도 91.7%였고, 한성은행 평양지점 한국인 예금 비중도 56.2%로서 역시 변화가 없었다(尹錫範 外 [18], 제8장).

62) 1924년 10월 대동은행은 兼二浦지점을 낼 계획이었지만, 대동은행의 장래를 낙관하지 않은 총독부는 '財界 趨勢와 朝鮮 地方金融界의 情況'을 들어 인가하지 않았다(『동아일보』, 1924. 10. 28, 12. 14).

63) 대동은행([6], 1924. 10. 3)의 “製菓會社에 대한 貸出整理 방법은 流込處分으로 不動產 擔保貸를 差引하고 … 訴訟取下하기로 決議”는 그 한 예이다.

64) 대동은행 [5], 1925. 7. 29, 『동아일보』, 1925. 5. 17, 5. 20, 5. 28, 5. 31.

월 현재 차입금은 자기자본의 295.4%인 176만 원대로 늘었고, 전체 자금원천에서 차입금이 차지한 비중도 38.6%로서 전체 일반은행의 수위를 차지했다.⁶⁵⁾ 게다가 不動産·信用담보는 상당 부분 不良擔保였고,⁶⁶⁾ 1925년 상반기 결산도 1만 1,055원 적자였다. 銀行資産으로 負債를 감당할 수 없었고, 심지어 ‘支拂不能 같은 不祥事’마저 우려되었다.⁶⁷⁾ 중역들도 감당할 수 없는 사태였다.

해결 방법은 세 가지 뿐이었다. 하나는 납입자본금을 증액하여 은행을 存續시키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解散하는 것이며, 마지막은 다른 은행과 合併하는 길이었다. 그러나, 첫째는 미납자본금 150만 원을 전액 납입받아도 조선은행 차입금 180만 원, 예금 200만 원을 갖고 나면 운전자금조차 없는 실정이었으므로 좋은 방안이 아니었다. 해산은 대동은행 株主·預金者는 물론 平壤과 西鮮 경제계 전체를 뿌리부터 흔들어 ‘朝鮮統治上 遺憾’스런 사회문제를 일으킬 방안이었다.⁶⁸⁾ 해결책은 合併뿐이었다. 이 문제에 깊은 이해관계를 갖고 토의를 거듭했던 平壤商業會議所와 平壤繁榮會의 의견도 같았다.⁶⁹⁾ 1925년 4월 22일 대동은행 중역회는 전무 豐田과 취체역 회장 橫山이 경영악화에 책임을 지고 辭意를 표명한 가운데 이 은행을 다른 銀行과 合同하기로 하고, 그 업무를 취체역 富田儀作에게 맡겼다.⁷⁰⁾

朝鮮商業銀行(이하 朝鮮商銀)과의 합병교섭은 5월 중순부터 시작되었다.⁷¹⁾ 중역회는 총독부와 지방장관에게 합병 주선을 청원키로 하면서 그 업무를 취체역 富田儀作과 宮川五郎三郎에게 맡겼고, 교섭결과를 토대로 자본금 712만 5,000원의 朝鮮商銀과 합병하되 조건, 방법, 기타 일체 사항을 朝鮮銀行에 一任하기로 하였다.⁷²⁾

총독부, 평안남도 당국이 간여하고 조선은행이 주선을 맡은 가운데 교섭은 급속히

65) 1925년 6월 일반은행 자금원천에서 차입금이 차지한 비중은 평균 7.4%였다. 비중이 큰 은행은 大同 38.6%, 北鮮商業 26.7%, 大邱 19.4%, 鮮南 19.0% 등이고, 나머지는 10% 미만이었다(中村資良 編, [35]).

66) 『동아일보』, 1925. 5. 20.

67) 大同銀行 [5], 1925. 8. 11.

68) 大同銀行 [5], 1925. 8. 11.

69) 大同銀行 [10], 1925. 8. 11. 平壤繁榮會는 한·일인 小賣商 120여 명이 조직한 단체이다(平壤商業會議所, [34], p. 368). 일제하 평양의 小賣商은 일본인이 장악하고 있었다(朱益鍾 [21]).

70) 大同銀行 [7], 1925. 4. 22. 富田은 朝鮮銀行의 井內勇 理事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교섭했다(『동아일보』, 1925. 6. 14). 그는 1920년대 전반기에 진남포와 평양에서 鎭南浦水産(株), 西鮮漁業(株), 鎭南浦電氣(株), 鎭南浦汽船合資, 西鮮縲綿(株), 鎭南浦物産市場의 주주, 취체역, 社長 등을 지냈을 뿐 아니라, 1920년에 설립된 한국 唯一의 증권거래소인 (株)京城株式現物取引市場 취체역으로 활약하는 등 한국 재계의 명망가였다.

71) 『동아일보』, 1925. 8. 2. 朝鮮商銀은 원래 한국인이 설립한 大韓天一銀行이 1911년에 行名을 고친 은행이나, 1924년 8월 서울의 일본인 은행인 朝鮮實業銀行과 합병하여 경영권과 소유권을 일본인에게 장악당한 상태였다. 尹錫範 外 [18], 재8장 참조.

72) 大同銀行 [7], 1925. 6. 13. 대동은행은 1925년 상반기 영업을 朝鮮銀行의 지도 아래 假決算했을 만큼 이미 조선은행의 지휘 아래 놓였다.

진척되었다. 6월 말에는 정무총감 주선 아래 동경에서 조선은행 간부들이 이 문제를 협의했고, 조선은행 주도로 조선은행 평양지점 지배인, 대동은행 專務(豊田), 平南知事가 접촉하여, 7월에 합동을 위한 株總을 열며, 8월에 합병계약서에 調印하고, 9월에 合同을 완료한다는 日程까지 마련했다.⁷³⁾ 7월 초에는 조선은행 업무부장과 지배인, 조선상은 두취와 전무, 대동은행 전무와 지배인, 평안남도 내무부장 등이 조선은행에서 회합하여, 조선은행이 대동은행에 이미 대출한 180만 원의 금리를 年 10%에서 4%로 引下하며 추가로 연리 5%의 자금 5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⁷⁴⁾

대동은행을 정밀 검사한 조선은행은 합병의 최대 난제인 株式併合과 重役配定 문제도 협의하기 시작했다. 검사 결과 대동은행의 대출액은 약 447만 원이고, 그 중 固定貸는 227만 원이나 되었다.⁷⁵⁾ 회수 가능한 대출 가운데도 이자가 연체된 것이 상당액이고, 부채는 조선은행 차입금 184만 원과 예금을 합해 411만 원이나 되었다. 이에 조선은행은 대동은행 증역의 소유 주식(1만 5,500주)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게 하고 나머지 주식은 조선상은 주식과 3대 1을 약간 하회하는 비율로 交換 併合시키기로 했으며, 그 후 이를 수정하여 대동은행 重役의 소유주식을 2 대 1로 교환하되 합병 후 적당한 기회에 이들을 조선상에게 입사시키며, 대동은행 자본금은 2/5로 減資하기로 하였다.⁷⁶⁾

대동·조선상은 그 해 7월 27일 合併假契約書에 조인하였다.⁷⁷⁾ 조선상은 9월 15일에 대동은행을 흡수합병하며, 대동은행 자본금(200만 원)은 80만 원으로 減資하고, 조선상은 新株 1만 6,000주(第3新株, 액면 50원, 납입 1/4)를 발행하여 대동은행 주식(액면 50원, 납입 1/4)과 2 대 5의 비율로 교환하기로 했다. 대동은행 주식 3/5을 감축하여 생긴 30만 원과⁷⁸⁾ 기타 적립금(법정적립금 제외)으로 대동은행의 不良債權과 所有物을 償却하기로 한 것이다. 대동은행 주주에게는 7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의 이익금을 배당하지 않았고, 증역에게도 흡수는 고사하고 퇴직위로금조차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대동은행의 본점, 지점, 출장소는 조선상이 인수하여 지점, 출장소로 만들고, 직원도 대동은행 근속연수를 합산하는 조건으로 인수하기로 했다. 철저한 吸收합병이었다. 不實銀行을 떠맡은 朝鮮商銀에도 상응한 지원을 하였다. 대동은행의 조선은행 차

73) 『동아일보』, 1925. 6. 30.

74) 『동아일보』, 1925. 7. 5, 7. 7, 7. 9.

75) 『동아일보』, 1925. 7. 10, 7. 23. 1925년 7월 22일의 대동은행 資產(貸出)은 447만 원(이 가운데 회수액 219만 2,000원, 固定貸 227만 7,000원), 부채는 납입자본 50만 원, 적립 및 이월금 11만 1,000원, 차입금(鮮銀) 184만 6,000원 등 475만 6,000원이었다.

76) 『동아일보』, 1925. 7. 10, 7. 28.

77) 韓國商業銀行 [22], pp. 82~85, [朝鮮商業銀行 大同銀行 合併假契約書], 1925. 7. 27. 『동아일보』, 1925. 8. 2.

78) 대동은행 주식 4만 주를 조선상은 주식과 5 대 2로 교환하면 1만 6,000주(납입액 20만 원)이다. 따라서, 2만 4,000주의 납입금 30만 원(1주당 12원 50전)이 남는다.

입금 180만 원에 대한 금리를 4%로 낮추어 향후 10년의 整理期間 동안 居置케 했으며, 연리 5%의 저리자금 50만 원을 추가 융통하기로 하였다. 총독부와 평안남도 당국도 합병취지를 살린다는 명분 아래 '無形의 援助'를 다하기로 하였다.⁷⁹⁾ 1925년 8월 11일 두 은행 임시주총은 논란 끝에 합동을 가결하였다. 1921년에 삼화·평양은행 합병으로 탄생했던 大同銀行은 이렇게 해서 서울의 조선상은에 재합병되었다.

V. 結 語

일제의 강점정책은 한국을 일본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시켜 그 利源을 開發함으로써 收奪을 극대화한다는 것이었다. 收奪을 위한 일제의 開發政策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었다. 이에 강점 초 일제는 (株)京城株式現物取引市場의 설립을 인가하여 직접금융 시장을 정비하고, 日本銀行, 朝鮮銀行, 朝鮮殖産銀行, 金融組合, 一般銀行으로 연결된 銀行制度도 정비하였다. 이 과정에서 1910년대 한국에는 다수의 일반은행이 설립되었다. 1920년에 21개로 정점에 달했던 일반은행은, 1920년대 전반기에만 무려 7개의 일반은행이 소멸하는 등, 그 후의 경기변동과 일제의 은행합동 정책에 영향을 받아 부단히 合併되었다. 이 가운데 1920년대 전반기에 합병 소멸한 7개 은행은 모두 일본인 은행이었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은 地方的 合同을 거쳐 서울의 大銀行에 재합병되었다. 본 연구는 이 시기의 은행합병에 나타난 특징을 모두 갖춘 三和·平壤·大同은행의 설립 합병과정을 사례연구로서 검토한 것이다.

三和銀行은 1916년에 진남포의 富田儀作이 설립한 자본금 30만 원의 은행으로서 1920년 3월 反動恐慌 이후 경영위기에 빠졌다. 好況 때 과잉대출한 자금은 회수되지 않았고, 好況 때 끌어들이던 차입금은 늘어 1921년 상반기 전체 자금원천에서 차입금이 차지한 비중이 30.6%로 일반은행의 수위를 점했다. 부동산 담보대출도 총대출액의 57.0%로 늘며 대출이 고정되었다.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였다.

1920년 3월 평양과 진남포의 일본인들은 자본금 170만 원의 平壤銀行을 설립하였다. 사실 평양에서는 1910년대 전반부터 西鮮·平安은행 설립세력, 진남포의 信一組合 등 한국인들이 은행설립에 적극 나선 가운데, 은행설립의 주도권을 놓고 한·일인이 치열하게 경쟁해 왔다. 그런데 이 때 총독부가 일본인에게 은행 설립을 인가한 것이다. 평양은행 설립에는 삼화은행 처리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평양·진남포라는 하나의 商圏에 두 은행이 分立하면 두 은행 모두 타격이 예상되었으므로, 평양은행은 창립 후 적당

79) 『동아일보』, 1925. 8. 2.

한 시기에 三和은행을 합병하기로 하였다. 지방 중소은행의 경쟁격화를 은행합동을 통해 해소하려 한 것이다. 평양은행은 조선은행과 제130은행 출신을 두취, 취체역 겸 지배인으로 영입하며 의욕적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영업기반이 일본인 사회로 한정된 데다, 反動恐慌의 여파로 부동산 담보대출이 늘며 자금이 고정되었고, 전체 자금원천에서 차입금이 차지한 비중도 크게 늘었다. 이런 가운데 1921년 10월 평양은행은 삼화은행을 吸收合併하고 大同銀行(자본금 200만 원)으로 이름을 고쳐 재출발하였다.

반동공황이래 지속된 不況으로 大同은행의 성적은 양호하지 않았다. 부동산 담보대출이 6, 7할대를 유지하며 자금이 고정되었고, 1925년 6월 현재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95.4%인 177만 원대로 늘며 전체 자금원천에서 점한 비중도 38.6%로서 일반은행의 수위를 차지했다. 일본인 사회에 한정되었던 영업기반도 해소되지 않았다. 1924년 말 이 은행 평양 본·지점의 민족별 예금액은 일본인 90.9%, 한국인 8.9%였고, 대출액도 일본인 93.7%, 한국인 6.3%였다. 진남포지점도 같았다. 따라서, 銀行공황, 地震공황으로 일본경제가 타격을 받자, 일본과 주로 거래해 온 이곳 일본인이 타격을 받았고, 이들을 주요 고객으로 한 이 은행도 연쇄적인 타격을 받았다. 게다가 평양에는 朝鮮·朝鮮殖産이라는 거대은행, 자본과 금융기법에서 大同은행을 압도한 安田·漢城 두 일반은행이 영업중이었다. 한국인 은행인 漢城銀行 평양지점은 물산장려 운동이 큰 호응을 얻는 속에서 평양지역 한국인 예금의 54.2%를 흡수하며 나름대로의 영업기반을 다졌고, 일본인을 주요 고객으로 삼아 大同은행과 영업기반이 겹쳤던 安田은행 평양지점은 일본인 예금의 18.0%를 잠식하며 預金초과 현상을 보였다. 대동은행의 입지는 그만큼 위축되었다.

1924년 9월 대동은행은 대대적인 경영쇄신에 착수했다. 두취를 취체역회장으로 물러 앉히고 대신 朝鮮商銀 支配人和 朝鮮實業銀行 專務 출신을 전무로 영입하여 은행을 대표케 하였으며, 本店·지점·출장소 지배인도 모두 교체하였다. 수뇌부를 更迭한 것이다. 經費節減도 추진하였다. 자기자본 증대방안도 강구하였다. 영업기반을 한국인 사회로 확장하는 방안도 모색하였다. 그러나, 경영은 호전되지 않았고, 1925년 초에는 거액의 예금이 일거에 인출되기까지 하였다. 1925년 상반기에 적자를 본 大同은행은 지불불능이 우려될만큼 경영이 악화하자 자기자본을 늘려 存續하는 방안, 解散하는 방안, 다른 은행과 合併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하였다. 결국, 1925년 4월 이 은행은 다른 銀行과 合同하는 방안을 택했고, 총독부, 조선은행, 지방장관이 개입한 가운데 朝鮮商銀에 흡수되었다. 대동은행 주식을 조선상은 주식과 5 대 2로 교환하고, 그 차액과 적립금으로 不良債權과 所有物을 償却하기로 한 철저한 吸收합병이었다.

1921년에 三和·平和銀行 地方的 合同을 거쳐 탄생시켰던 평양의 大同銀行은 이렇게 해서 京城의 大銀行인 朝鮮商銀에 합병되었다. 그 직전에 일본인이 경영권과 소유

권을 장악한 바 있던 조선상은은 대동은행을 흡수하여 자본금 792만 5,000원의 大銀行이 되었고, 그 후 이 은행은 일제의 강력한 지원 아래 다수의 일반은행을 흡수하며 일제 말 조흥은행과 함께 한국 최대의 일반은행으로 성장하였다. 일제하 은행자본의 집중과 집적은 이런 경로를 통해 진행되었고, 이는 일제의 한국금융 장악 과정이기도 하였다.

※ 참고 문헌 ※

〈研究資料〉

1. 『開闢』.
2. 『東亞日報』.
3. 『每日申報』.
4. 大同銀行, 『營業報告書』.
5. 大同銀行, 『株主總會決議錄』.
6. 大同銀行, 『取締役會決議錄』.
7. 大同銀行, 『重役會決議錄』.
8. 三和銀行, 『事業目論見書』.
9. 三和銀行, 『營業報告書』.
10. 平壤銀行, 『株主總會決議錄』.
11. 平壤銀行, 『營業報告書』.
12. 平壤銀行, 『重役會決議錄』.
13. 平壤銀行, 『取締役會決議錄』.

〈研究論文〉

14. 高承濟, 『韓國金融史研究』, 1970, 일조각.
15. 오미일, “1910~1920년대 공업발전 단계와 조선인 자본가층의 존재양상 - 평양지역을 중심으로”, 『韓國史研究』, 87, 1994.
16. 오미일, “1910~1920년대 평양지역 민족운동과 조선인 자본가층”, 『역사비평』, 1995, 봄호.
17. 柳承烈, 『韓末 日帝初期 商業變動과 客主』, 1995, 서울대 박사논문.
18. 尹錫範 外, 『韓國近代金融史研究』, 1996, 世經社.
19. 李碩崙, 『韓國의 一般銀行』, 1988, 법문사.

20. 朱益鍾, 『日帝下 平壤의 메리야스 工業에 관한 研究』, 1994, 서울대 박사논문.
21. 朱益鍾, “平壤 朝鮮人 企業家の 經營理念”, 『經濟史學』, 19, 1995.
22. 韓國商業銀行, 『韓國商業銀行六十年誌』, 1969, 韓國商業銀行.
23. 洪萬春 編, 『鎮南浦半百年史』, 1987, 알파문화사.
24. 加藤俊彦, 『本邦銀行史論』, 1957, 東京大學出版會.
25. 高承濟, 『植民地金融政策の史的分析』, 1972, 御茶の水書房.
26. 堀和生, “朝鮮における普通銀行の成立と展開”, 『社會經濟史學』 4-1. 1983.
27. 貴田忠衛, 『朝鮮人士興信錄』, 1922, 朝鮮新聞社.
28. 大橋清三郎 外 編, 『朝鮮産業指針』 上卷, 1915, 開發社.
29. 大內力 外, 『日本資本主義の沒落 I』, 1970, 東京大學出版會.
30. 富田精一, 『富田儀作傳』, 1936.
31. 阿部薰, 『朝鮮功勞者名鑑』, 1935, 民衆時論社.
32. 長谷川義雄, 『富田翁事績』, 1915, 西鮮日報社.
33. 田中麗水 編, 『全鮮商工會議所發達史』, 1936, 釜山日報社.
34. 中村郁, 『株式會社京城株式現物市場沿革誌』, 1923, 株式會社京城株式現物市場.
35. 中村資良 編, 『朝鮮銀行會社要錄』, 1921, 1923, 1925, 東亞經濟時報社.
36. 平壤商業會議所, 『平壤全誌』 上, 1927, 平壤商業會議所.
37. 朝鮮總督府, 『朝鮮金融經濟調查資料 1』, 1927.
38. 朝鮮總督府 編, 『昭和5年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32.
39. 後藤新一, 『本邦銀行合同史』, 1968, 金融財政事情研究會.